

독자 반응을 통한 한·영 간 색채의식 차이 연구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그 영역본 중심으로—

원 중 화
(중앙대)

1. 서론

우리를 둘러싼 삼라만상은 특유의 색채를 띠고 있다. 우리는 빨간색 불자동차를 보며 위험과 경고의 느낌을 받고, 기도하는 사제의 검은 사제복을 보며 침묵과 묵상의 고요함을 느낀다. 우리 주변 사물들의 색채는 온도나 중량감을 나타내고, 주변 소리나 냄새와 어우러져 고유한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공간감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또한 색채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지어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을 바꾸어 놓기도 하는 등 일상에서 우리의 감정이나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신성운 외 2011: 317-18).

그렇다면 이러한 색채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의식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감지하는 색채는 실제 빛이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반사되어 일정한 파장으로 우리 눈의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한 후 망막에 존재하는 원추 세

포를 자극하여 발생시킨 전기 신호가 후두엽의 시각 중추를 자극하면서 우리 뇌가 그 정보를 인식하게 되는 현상이다(강봉균 역 2010: 155). 그렇다면 색채에 대한 시각적 정보는 하나의 생리적 현상으로서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우리가 세상에 실체하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 뇌과학자의 설명을 빌자면 색채에 대한 의식은 이렇게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뇌의 정보 처리 용량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감을 통해 인지되는 정보들 중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이고, 장기 기억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근거로 이를 해석하고 이해한다. 시각 신경을 통한 색채 정보의 수용 역시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여기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은 심리적 경험이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주관적 체험인 것이다(황상민, 권보미 2005: 14).

1920년대에 미국의 언어인류학자인 사피어(Sapir)와 워프(Whorf)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가 속해있는 집단의 언어 관습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프리즘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간다는 ‘문화상대주의’를 주창했고(Sapir 1929), 이후 문화상대주의는 문화와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이질적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유명기 1993). 한 예로 글리슨(Gleason 1961: 4-5)은 아프리카 일부 부족 언어에서 색채 범주가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상대주의를 지지했으며,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위닉(Winick 1963)은 미국에 일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색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가별로 선호하는 색이나 연상 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 절대적인 문화상대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유명기 1993: 43-7). 특히 피아제(Piaget)를 필두로 한 여러 인지과학자들은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입장을 비판하고 인간 발달 단계의 보편성을 주장했다. 이들의 반 문화상대주의(counter-cultural relativism)를 뒷받침하기 위해 색채어에 대한 인지 실험 등 다양한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벌린과 케이(Berlin & Kay 1969)는 98개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 기초 색채어의 분포 조사를 근거로 기본색 이름을 11개로 분류하고 모든 언어권이 이 11가지 색 이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색채 의식의 보편성을 주

장했다. 벌린과 케이의 주장은 색채 의식은 선천적 인지현상이며 생리적 과정이기 때문에 각 언어권은 기본 색채어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보편적인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다(상세한 내용은 3장 참조). 기본 색채어에 관한 이들의 발표는 이후 색채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Lim 2006).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주의 간의 입장 차이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인류의 인식 활동은 보편적 기초가 있지만, 이러한 보편적 기초가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 접하면서 생성하는 의미와 행위가 다양해진다는 사실에 보다 주목해야한다”는 절충적 주장으로 정리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유명기 1993; 조영수 2001). 색채 의식과 관련하여 절충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만케(Mahnke 1996)는 ‘색채 경험 피라미드(color experience pyramid)’를 통해 인간의 색채 경험을 가장 기본적인 생물적 반응(biological reactions)에서부터, 집단적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 의식적 상징화(conscious symbolism), 문화적 영향과 매너리즘(cultural influences and mannerisms), 시대 사조(influences of trends, fashion, styles), 개인적 관계(personal relationship)에 이르기까지(최승희, 이명순 역 1999: 17-25) 여섯 단계로 크게 분류함으로써 보편주의와 문화상대주의를 함께 포괄하여 정리했다(상세한 내용은 2.1장 참조).

본 연구는 특히 색채어에 대한 한국어 독자와 영어 독자 간의 반응 비교를 통해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주의 간의 상반된 입장이 번역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색채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이나 해석이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문화 간 편차가 있는지, 있다면 이것이 어떤 양태로 나타나며 번역 과정에서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영해야하는지 등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으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그 영어 번역본인 테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The Vegetarian*을 선정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색채어가 주제 전달의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번역자는 어떤 번역 전략을 사용해 색채어를 전달했는지를 살피고, 이들 색채어에 대해 원본을 읽은 한국어 독자와 번역본을 읽은 영어 독자들 사이에 각각 어떤 반응이나 느낌이 유발되었는지를 심층 면접¹⁾을 통해 분석한 후에,

1) 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색채 의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방법, 공통 표현 연구,

이를 통해 한국어 독자와 영어 독자가 가지는 색채 의식을 비교해보았다.

2. 색채 의식이란 무엇인가

2.1 색채 의식의 개념 정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색채는 사실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 실체가 아니다. 색이란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고, 그 반사되는 파장을 우리 감각기관이 인식하면서 존재하게 되는 대상이며, 이러한 빛의 파장은 개별적 존재라기보다는 스펙트럼의 연속선상에 펼쳐지는 빛의 배열이다. 이렇게 스펙트럼 상에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색채 중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수십 가지 정도이지만 두 개의 색을 나란히 놓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하여 색을 분류해보자면 그 수는 750만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색을 모두 기억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언어문화권에 따라 제한된 수의 범주로 색을 분류하여 사용하게 되며, 그 수와 종류는 언어문화권에 따라 다양해 경우에 따라서는 색의 종류가 적게는 흑 백 만으로 구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로 분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박인진 1999; 진실로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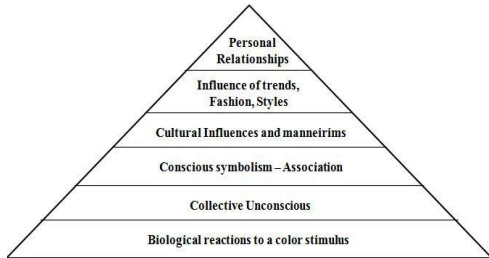
우리는 이렇게 범주화된 색을 주변 맥락과 합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한다. 장례식에 갈 때는 검은 옷을 입어 망자에 대한 예의를 표하며 결혼식의 신부는 흰 옷을 입어 결혼식의 분위기를 주도한다. 이렇게 우리는 색의 의미를 읽고 해석하며 색채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또한 이러한 의미는 관용어, 속담, 담화 등 다양한 언어 형태로 구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색채에 대해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사상과 이론, 색채에 대해 느끼고 해석하고 분별하는 태도 등 색채에 대한 제반 심리적 반응을 총괄하여 ‘색채 의식’이라고 규정한다(고석천 1996; 박선혜 & 권영걸 2005; 정시화 1981).

그렇다면 이러한 색채 의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은 인

은유 분석, 질문지 조사 등이 사용될 수 있는데(김기찬 2000: 2),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독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성찰적 방법을 사용했다.

류 보편적인 뇌신경계 활동이므로 인류라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인 것일까 혹은 심리적이고 심미적이며,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여러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어온 문화 특정적 현상인 것일까? 색채 의식에 있어서의 이러한 보편성과 상대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케(Mahnke 1996)의 색채 경험 피라미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만케의 색채 경험 피라미드(1996)



위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만케는 인간의 색채 경험을 크게 여섯 단계로 구분했다(최승희, 이명순 역 1999: 17-25). 그중 가장 아래 단계인 생물적 반응(biological reactions to a color stimulus)은 가장 생물적이고 원초적인 반응이다. 예를 들어 동물적인 차원에서는 짝짓기를 위해 날개 색을 바꿔 상대방을 유인하는 것, 잘 익은 열매와 설익은 열매를 색깔로 구분하는 것들이 이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은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인류의 유전자에 각인된 정보를 의미한다. 자주 인용되는 예로 갓난아기들은 나란히 놓여진 검은 동그라미 두 개를 선호하며, 이는 사람의 눈동자에 대한 원초적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이 단계에서 인류는 색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원형적인 이미지에 대한 기억을 본능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인 의식적 상징화-연상(conscious symbolism-association)은 각 색채에 대해 상징적 이미지가 연상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많은 문화권에서 검은색은 죽음이나 장례식을 상징하며, 붉은색은 혈기와 에너지의 느낌을 전달한다. 네 번째로 문화적 영향과 매너리즘(cultural influences and mannerisms)은 위의 상징적 연상 이미지들이 문화적 특징으로 고착화되고, 이것이 언어로, 전통 풍습으로 기타 구체적인 형태로 전

승되어 내려오는 단계이다. 한국의 전통 오방색 역시 이 단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인 시대사조(*influence of trends, fashion, styles*)는 색채 의식의 시대적 변화를 의미한다. 한 예로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붉은색은 경사스러운 색으로, 혹은 귀신을 쫓는 색으로 인식되었으나(고석천 1996),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붉은색이 공산주의를 표상하게 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졌고, 1995년 축구애호가들을 중심으로 붉은 악마(*red devil*)라는 축구팬 그룹이 결성되고 그 활동이 확대되면서 붉은색의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마지막 개인적 관계(*personal relationships*)는 개인적 경험에 의해 가지게 되는 색에 대한 특정적이고 개별적인 느낌을 일컫는다. 이렇게 색채 의식이라는 것이 인류 보편적인 생물적 현상으로 시작하여 유전자에 각인되지만 이와 동시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의 문화특정적 현상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것이 만케(1996)의 색채 경험피라미드가 보여주는 색채 의식의 발전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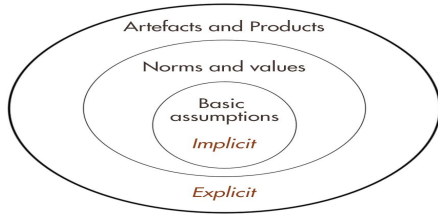
2.2 문화적 요소로서의 색채 의식

색채 의식이 이렇게 문화적 특징으로 고착화되어 내려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문화적 요소 중 어떤 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문화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분류했다(Katan 1999: 25-33). 예를 들어 트롬페나르(*Trompenaars* 1993: 20-8)는 “문화의 다층이론(*layers of culture*)”에서 다음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를 인공물, 물품 등 가시적 항목 등을 포함하는 최외층(*outer layer*), 사회규칙, 가치관 등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중간층(*middle layer*),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심층 의식 속에 존재하는 관점 등을 포함하는 핵심층(*core layer*) 등 세 단계로 구분했다.

이와 유사하게 홀(*Hall* 1990: 59-93)은 문화를 세 차원으로 나누어 가시적이고 기술적이어서 누구에게나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며 학습이 가능한 문화적 요소들을 기술적 문화(*technical culture*), 주관적 판단의 대상이지만 학습되고 전승되는 대상(예: 전통, 규칙, 관습, 절차 등)을 형식적 문화(*formal culture*), 별도의 학습 없이 선천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 등을 비형식적 문화(*informal culture*)로 분류했다. 색채 의식은 공식적으로 교육되고 훈련되기 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의 다양한 체험에 노출

되어 자연스럽게 습득되면서 의식의 기저에 자리 잡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장 심층적 단계인 비형식적 문화(informal culture)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트롬페나르의 '문화의 다층이론'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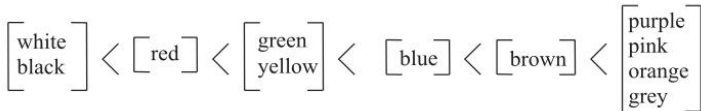


3. 한·영간 색채어 비교

서론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특히 색채어와 관련하여 보편주의를 주장했던 벌린과 케이(1969)는 세계 98개 언어권에서 사용되는 기본 색채어들을 조사하고, 11개 기본 색채어의 발달에는 일정한 위계 질서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색채는 왼쪽에서부터 가장 필수적인 기본색채이며 그 위계 순서가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다시 설명하자면, 색채어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언어의 경우 예외 없이 흑과 백의 색채어가 존재하며 세 개인 경우는 여기에 빨간 색을 나타내는 색채어가 부가되는 식이다. 또한 어떤 언어가 만약 brown에 해당하는 색채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언어는 이미 blue, green, yellow, red, white, black에 해당하는 색채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3. 기본색이름의 계층구조 (Berlin & Kay 1969)



많은 학자들은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를 위의 그림3에서 세 번째 단계까지

인 ‘청, 황, 적, 백, 흑’의 다섯 가지 오방색으로 보고 있다(김기찬 2000). 단 여기서 한국어의 ‘청’ 즉 ‘푸른’에는 ‘숲’의 색도 함께 포함되며, ‘하늘’이나 ‘바다’의 푸른색과 구별해 숲을 나타내는 ‘초록’은 후에 중국어에서 차용되었다(김기찬 2000; 이현희 2011). 이후 한글 색채어는 중국의 한자어에서 차용되거나(초록색, 갈색, 주황색, 회색, 분홍색, 보라색), 외래어의 영향으로 다양한 색채어가 만들어지면서 점차 그 양태가 복잡해졌다. 벌린과 케이는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가 전통적 오색에 ‘초록색, 갈색, 보라, 분홍, 주황, 회색’ 등이 추가되어 11개 색으로 볼 수 있다고 했으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05년에 ‘표준색 이름’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기본색을 이에 ‘연두, 청록, 자주, 남색’을 추가하여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하양, 회색, 검정’ 등 15개 색으로 규정했다(이선영 2012). 본 논문에서는 영어와의 비교를 위해 벌린과 케이가 주장한 11개 기본색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국어 색채어의 사용 양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기본 색채어에 접두어를 붙이거나(예: 새빨강다, 싹누렇다 등), 음성모음으로 모음조화를 이루거나(예: 빨강다 대 벌겉다, 노랗다 대 누렇다), 자음을 대립시켜 색상의 차이를 나타내고(예: 빨강다 대 빨갱다, 거멓다 대 꺼멓다), 접미사를 붙여 만든 파생어들로 다양한 색상의 차이를 표현하며(예: 거무죽죽하다, 누르스름하다, 불그레하다, 희끄무레하다, 누리끼리하다, 허여멀겉다 등), 때로는 사물의 이름을 붙여 색채어로 사용하거나(예: 팔죽색, 축색, 수박색, 레몬색 등), 어간 반복으로 뜻을 강조하며(예: 푸르디 푸른, 붉디 붉은), 색채어 두 개를 합친 합성어를 사용하여(예: 검붉다) 다양한 색채의 느낌을 표현하기도 한다(김해연 2014; 손세모돌 2000; 안수빈 2015).

벌린과 케이는 영어 색채어 역시 ‘black, white, red, green, yellow, blue, brown, purple, pink, orange, grey’ 등 11개 색채어로 구분하였다. 한국어에 비해 영어의 색채어에 붙는 파생 접미사는 훨씬 그 수가 적어 -ness(예: redness), -ish/y(예: yellowish, reddish), -en(예: blacken)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이는 의미적인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형용사+색채어’의 형태인 합성어(예: light green, bright purple, pale pink, deep blue)²⁾, 사물

2) 영어의 색채어에서 색의 삼 요소 중 하나인 색상 농도는 각각 deep과 pale을 색채어 앞에 붙여 그 진하고 연한 정도를 나타내며(예: deep blue, pale yellow), 명도는 각각 bright나 light를 색채어 앞에 붙여 밝은 색을(예: bright red, light green), dark를 색채

이름과 결합한 색채어(예: olive green, cherry pink, milk white, cocoa brown, salmon color, blood red, ash grey), 색채어와 색채어가 합쳐진 합성 색채어 등(예: blue green, grey beige)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안수빈 2015: 24-27).

〈표 1〉 한국어와 영어의 11개 기본 색채어 대응 비교

검정-black, 하양-white, 빨강-red, 녹색-green, 노랑-yellow, 파랑-blue, 갈색-brown, 보라-purple, 분홍-pink, 주황-orange, 회색-grey
--

이러한 한국어와 영어의 기본 색채어는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대일 대응이 대체적으로 잘 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을 하는데 있어 단어 대 단어의 일대일 대응 전략에 별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같은 색이라도 연속선상에 펼쳐져있는 색채 스펙트럼의 범주화가 언어 간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박인진 1999), 색채에 대한 연상 이미지나 색채 의식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천 텍스트에서 사용된 색채어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목표 텍스트에서 이에 상응하는 색채 표현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진실로 2003). 또한 기본 색채어 이외에 파생어, 합성어 등은 그 느낌을 한국어와 영어사이에 일대일로 정확히 대응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느낌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독자 반응을 통한 한·영 간 색채 의식 비교

4.1 방법

4.1.1 분석 대상

한국어 원본에서 영어 번역본으로의 색채 의식의 흐름과 이에 대한 독자

어 앞에 붙여 어두운 색을 나타내고(예: dark brown), 채도에 있어서는 vivid나 clear를 색채어 앞에 붙여 맑고 선명한 색을(예: vivid gray, clear blue), 그리고 murky나 blurry를 색채어 앞에 붙여 탁하고 흐린 색(예: murky red, blurry green)을 나타내고 있다(안수빈 2015).

반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에 초판 발행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선택했다.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세 편의 중편소설을 엮어 만든 장편 소설집이며 각 편마다 다양한 상징과 은유가 농축되어 완결성있는 스토리 전개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작가인 한강은 각 편마다 적합하고 치밀한 색채 구성을 통해, 색채어가 수반하는 이미지와 상징적 의미를 전체 스토리 흐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판인 *The Vegetarian*은 2015년에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에 의해 번역되었고, 2016년에 맨부커 인터내셔널(Man Booker International)상을 수상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번역자인 데보라 스미스는 『채식주의자』를 번역하는데 있어 영어 화자인 서구 독자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염두에 둔 자국화 번역 전략을 선택했고 이를 위해 의역, 과감한 생략, 문장 변형, 내용 수정 또는 첨가 등을 구사했다(김영신 2016). 따라서 많은 경우 때로는 오역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원천 언어의 문화적 맥락보다는 서구인들에게 이해가 잘 되는 방향으로 텍스트를 풀어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번역에 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대중 2016; 김영신 2016; 이인규 2017).

분석 대상으로 『채식주의자』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이 책이 상징적 의미가 강한 소설로서 그 상징적 특징을 구현하고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색채어가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번역자인 데보라 스미스 자신이 “목표 텍스트 독자들이 원본의 톤과 리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을 이미 명시적으로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김가희 2016) 이러한 번역사의 접근 방향을 기반으로 독자 반응을 분석하고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4.1.2 분석 절차

연구 절차로서 먼저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색채어들을 정리해 저자가 갖고 있는 색채 의식의 흐름을 살폈고, 이것이 영문 번역판인 *The Vegetarian*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그 전략을 확인하고 분류함으로써 원본에 등장하는 색

채어에 대한 번역자의 의식을 분석했다. 그 후 색채어에 대한 독자 반응을 통해 한영간의 색채 의식 차이가 독자 반응에서 서로 어떻게 다르게 투영되는지 확인했다. 한국어 원본과 영어 번역본을 각각 읽을 독자들로 한국어 모국어 화자 3인, 그리고 영어 모국어 화자 3인을 선정했다.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은 모두 어학 관련 전공자들로써 영어 구사가 가능하지만 통번역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지인들로 구성했다.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 혹시나 모를 대륙 간 문화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북미 대륙권의 영어 모국어 화자들로 통일했으며, 최종적으로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캐나다인 1인, 미국인 2인을 선정했다. 이들 중 두 사람은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그중 비교적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한 사람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사용했다.

선정된 독자들에게는 먼저 『채식주의자』(영어 모국어화자인 경우 *The Vegetarian*)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오도록 요청한 후 본 연구자의 연구실 혹은 독자가 원하는 조용한 장소에서 일대 일 인터뷰를 실시했다. 각 인터뷰는 약 세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중에는 책에 등장하는 색채어를 일일이 짚어가며 해당 맥락에서 색채어가 주는 느낌이 어떠한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터뷰가 모두 완료된 후에 각 색채어에 대한 반응을 취합하여 비교 분석했다. 응답지가 아닌 인터뷰 형식을 선택한 이유는 직관이나 느낌에 관련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본 연구를 위해 서면상의 응답이 충분한 대답을 끌어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추후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분석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더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는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혹은 이메일을 통해 보충 질문을 했으며 각 언어 별로 세 사람이 모두 같은 의견을 보일 때 공통된 색채의식으로 간주했다.

4.2 결과

4.2.1 원본의 색채어 구성

『채식주의자』를 구성하는 3편의 중편 소설 중 1편인 <채식주의자>는 아내인 영혜가 육식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평화와 반역압의 세계인 식물성으로의

회귀를 추구하다 결국 인간 제도권내에서 가장 동물적인 방식으로 의료 치료가 진행되는 병원에 입소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또는 가축에게 자행하는 폭압은 피의 붉은색으로 표상된다. 1편에서 등장하는 51개 색채어 중 12개가 붉은색으로 피 또는 살육을 표현하고 있고(예: 시뻘건 고깃덩어리, 붉은 피, 선홍빛 색깔의 피, 검붉은 피, 진홍빛 피), 12개가 흰색으로 그중 10개가 주인공 영혜의 소박한 분위기 그리고 주변 환경을 표현하고 있으며(흰 잠옷치마, 흰 모습, 흰 커튼, 흰 타일, 흰옷, 흰 접시, 흰 티셔츠), 나머지 2개가 인간 폭압의 희생양이 되는 개를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몸집이 잘생긴 흰 개, 눈을 희번덕이는 흰둥이). 16번 사용된 검은색은 영혜가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검은 구두, 염색하지 않은 검은 머리, 검은 트렌치코트, 검은 블라우스), 황량하고 몰인정한 어둠의 세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시커멓게 뚫린 환풍구), 그밖에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영혜 부친을 묘사하거나(새카맣게 그을린 장인의 얼굴), 피로와 내면의 갈등으로 생기가 사라져가는 영혜의 얼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긴 불면으로 숫제 검게 타버린 영혜의 얼굴).

2편인 <몽고반점>의 주제는 동물성과 식물성의 자의적 교합이다. 식물성으로 회귀를 갈망하는 영혜는 여전히 무채색으로 둘러싸인 순수하고 무구한 존재로 표현되며(흰색의 피부, 검은색 머리결), 식물성으로의 편입을 유도하는 전 장치로 자줏빛, 빨강, 샛노랑, 황금빛 현란한 꽃송이들이 등장하면서 억압된 무채색 세계가 화려한 유채색 세계로 탈바꿈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2편 전체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 색은 바로 몽고반점의 푸른색이다. 20세가 넘기까지 영혜의 엉덩이에 남아 화가인 형부의 원초적 감정을 솟구치게 만드는 푸른색 몽고반점은 나신위에 붉은색과 어우러지는 푸른색 꽃으로 거듭나 전 편의 상징적 분위기를 주도한다. 2편에서는 색채어가 70회 등장하는데, 그 중 15회가 푸른색이다. 푸른색은 몽고반점을 묘사하기 위해 6회, 나신위의 푸른 꽃을 묘사하기 위해 6회, 그리고 베란다 밖의 검푸른 창밖을 묘사하기 위해 3회 사용되었다. 여기서 밖에 보이는 하늘은 1편에서는 일관되게 검은색인데 반해 2편에서는 검푸른 창밖으로 묘사되었다. 그 밖에 12회 사용된 붉은색은 나신 위에 그려져 푸른색과 교합하는 붉은색(예: J의 아랫배로 이르는 붉은 꽃잎 등)을 묘사하거나(7회), 감정의 고조로 붉어진 얼굴 등을 묘사하기 위

해 사용되었다. 그 밖에 16회 사용된 흰색은 영혜의 살색(흰 발목, 흰 엉덩이)으로 주인공의 순진무구함과 성적 매력의 자연스러운 공존을 전달하거나, 등장 인물의 옷차림(흰 와이셔츠) 또는 배경색(흰 시트, 흰 공간 등)으로 사용되어 붉은색과의 극명한 대조를 살려내는 역할을 했다.

3편 <나무불꽃>에서 영혜에게 남아있던 희미한 동물성의 흔적은 결국 검은 색 그림자로 스러져 가게 된다. 3장을 관통하는 주제 색은 검은색이다. 검은 새, 검은 그림자, 검은 천정, 검은 바닥 등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검은색을 깔아놓은 3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동물성의 종말을 영접하듯 춤추는 초록색 불꽃, 숲과 나무들의 일렁이는 초록빛 물결이다. 여기서의 인위적이고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강렬한 나무 색은 녹색이나 푸른색 보다 진하고 강렬한 초록빛으로(주미경 2010) 전달되고 있다. 3편에서는 색채어가 총 55회 사용되었는데, 그 중 22건이 검은색으로서 대부분 검은 비, 검은 숲, 검은 빗발, 검은 새, 검은 흙 등 죽음을 상징하는 듯 불길하고 어두운 주변 환경을 묘사했다. 그 외 영혜의 죽음을 영접하는 듯한 강렬한 숲의 모습을 표현하는 초록색이 2회 사용되었고(초록빛의 커다란 불꽃, 정신병동과 그 병동에 갇혀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회색으로 표현한 것이 2건(질은 회색의 콘크리트 벽면, 비를 구경하는 환자들의 회색 얼굴), 그리고 검은색과 대조를 이루어 선을 묘사하는 흰색이 11회(흰 옷, 흰 가운, 흰 뿌리, 흰 피부, 하얀 새) 사용되었다.

각 세 편의 색채 출현 빈도를 단일어(기본색채어), 복합어(파생어와 합성어), 관련어(색채 스펙트럼에서 기본색채어의 인근에 있는 색채어)로 분류하여 집계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채식주의자』의 주요 색채 출현빈도³⁾

색채	색채 유형	1편	2편	3편
검은	단일어	14(검은, 흑)	5(검은, 검정)	18(검은, 먹구름)
	복합어	2(시커멓게, 새카맣게)	1(거뭇거뭇한)	3(새카만, 까맣지다)
흰	단일어	11(흰, 하얗게)	16(흰)	11(흰, 하얀)

3) 원본에는 없는데 번역본에 추가된 색채어(예: 고깃덩이 → red raw mass)는 <표2>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4.2장 번역 전략에서 포함시켜 분석했다.

	복합어	1(희끄무레한)	--	--
붉은	단일어	7(붉은)	8(붉은)	2(붉은)
	복합어	5(시뻘건, 빨강계, 붉히다, 검붉은, 발개지다)	2(별경계, 빨강)	5(빨갳하게, 붉히다, 새빨강다, 새빨개지다, 시뻘겟다)
	관련어	2(선홍빛, 진홍색)	2(팔죽색, 선혈같은 진홍)	--
푸른	단일어	--	11(푸른, 파랗게, 푸르게)	2(푸른)
	복합어	--	4(푸르스름한, 푸르죽죽, 시퍼런, 검푸른)	3(푸르스름한, 파릇한, 검푸른)
	관련어	1(남색)	--	--
노란	단일어	1(노란)	1(노란)	2(노란)
	복합어	1(노르스름한)	1(갓노란)	-
	관련어	-	3(황금빛)	-
초록	단일어	1(초록빛)	1(초록빛)	2(초록빛)
	복합어	--	2(연한초록빛)	--
	관련어	--	3(흐린 연둣빛, 연둣빛)	1(연둣빛)
회색	단일어	--	--	1(회색)
	복합어	1(엷은회색)	1(진회색)	2(짙은회색)
	관련어	1(갓빛)	--	--
주황	단일어	--	2(주황색)	--
	복합어	--	--	--
	관련어	1(산호색)	--	--
갈색	단일어	--	1(갈색)	1(갈색)
	복합어	2(엷은 갈색, 연갈색)	--	--
보라	단일어	--	--	1(보라색)
	복합어	--	2(짙은보라, 연보랏빛)	1(바랜 보라색)
	관련어	--	3(자줏빛)	--
기타	--	1(흑백의 세계)	--	
합계		51	70	55

위의 표를 통해 원본에서 색채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보자면, 『채식주의자』에서는 벌린과 케이의 11가지 색 중 분홍(pink)을 제외한 10가지 색채어

가 모두 사용되었지만 특히 각 편 별로 주제에 따라 두세 가지 색으로 집중되어 그 주제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 즉, 1편의 주요 구성색은 피와 폭압을 상징하는 붉은색, 그리고 순수와 겸손을 표상하는 흰색과 검은색이며 2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색은 몽고반점의 푸른색, 유채색의 중심에 놓여있는 꽃의 붉은색과 기타 다양한 유채색들로, 그리고 3편의 주요 구성색은 어둠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이 주로 활용되었다. 이로부터 원 저자의 의식 속에서 색채어가 주제 전달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특히 여러 가지 색채 중에서도 한국어의 다섯 가지 기본 색채어인 ‘흑, 백, 적, 청, 황’ 중 ‘황’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색채어 즉 ‘흑, 백, 적, 청’의 사용이 전체 176건 중 137건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인의 개념 체계를 반영하는 언어적 표현으로서 속담이나 관용어에서의 색채어 사용이 주로 기본 색채어에 편중되어 있는 결과(김영철 2003; 박선혜, 권영걸 2005)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어에서의 개념 표현과 전달에 있어 기본 색채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4.2.2 원본의 색채어에 대한 번역 전략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는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총 176개의 색채어를 다음 일곱 가지 전략을 사용해 번역했다.

- a. 직역: 한국어 색채어가 영어 대응어로 그대로 번역된 경우(예: 검은 비, 검은 숲 → black rain, black woods)
- b. 유사대체: 동일한 색채어나 복합어를 단일어로 대체하거나, 단일어를 복합어로 대체한 경우(예: 냉장고의 희끄무레한 문 → the fridge's white door; 큰 눈이 새빨개지다 → her big eyes turn red)
- c. 상이대체: 완전히 상이한 색채어로 대체한 경우(예: 핏기없는 입술가에 흰 크림이 묻었다 → its redness smeared over her bloodless lips)
- d. 일반표현으로 대체: 색채어를 일반 표현으로 대체한 경우 (예: 새까맣게 그을린 장인의 얼굴 → my father-in-law's swarthy cheeks)
- e. 생략: 색채어가 생략되거나 색채어가 포함된 문장 혹은 단락이 누락된 경우 (예: 희고 검은 비닐봉지들 → plastic bags)

f. 설명 추가: 색채어를 번역하면서 여기에 설명을 추가 (예: 꾸덕꾸덕 짙은 괄죽색으로 굳게했다 → drying into the dark matt burgundy of red bean soup)

g. 색채 추가: 원문에 없는 색채어를 번역문에서 추가한 경우(예: 떨어진 고깃덩어리를 주워먹다 → push the red raw mass into the mouth)

번역 전략의 빈도 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데보라 스미스의 색채어 번역전략

	직역			유사대체			상이대체			일반표현			생략			설명추가			색채추가		
	단	복	관	단	복	관	단	복	관	단	복	관	단	복	관	단	복	관	단	복	관
흑	34	-	-	1	4	-	-	-	-	1	2	-	1	-	-	-	-	-	2	-	-
백	28	-	-	1	-	1	-	-	-	-	-	-	9	-	-	-	-	-	2	-	-
적	14	3	3	3	3	-	-	-	-	4	-	2	-	-	-	-	-	1	3	-	-
청	12	4	1	1	-	-	1	-	-	-	-	-	1	-	-	-	-	-	1	-	-
황	3	1	3	-	-	-	-	-	-	1	-	-	-	-	-	-	-	-	-	-	-
녹	4	1	5	-	-	-	-	-	-	-	-	-	-	-	-	-	-	-	1	-	-
회	1	1	1	-	2	-	1	-	-	-	-	-	-	-	-	-	-	-	-	-	-
갈	1	1	-	-	2	-	-	-	-	-	-	-	-	-	-	-	-	-	-	-	-
보	2	2	-	-	-	-	1	-	-	-	-	-	-	-	-	-	-	-	-	-	-
주	2	-	1	-	-	-	-	-	-	-	-	-	-	-	-	-	-	-	-	-	-
분	-	-	-	-	-	-	-	-	-	-	-	-	-	-	-	-	-	-	1	-	-

<단:단일어, 복:복합어, 관:관련색채어>

<표 3>로부터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직역, 즉 원래의 색채어를 그대로 영어 대응어로 치환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번역자는 전체 색채어 176개 중 128개(72.7%)를 그대로 직역 처리했다. 단일어인 경우 전체 색채어 134개 중 106개를 직역 처리했으며(예: 흰 발목 → white ankle), 복합어 역시 전체 33개 중 13개를 직역 처리했다(예: 검붉은 피 → blackish-red blood; 푸르스름한 점 → bluish mark). 관련어(관련어의 정의는 4.2.1 참고) 역시 직역 처리된 경우가 많았는데 전체 15개 관련어 중 14개가 직역 처리 되었다(예: 선혈같은 진홍의 거대한 꽃 → a single huge flower, the crimson of blood; 선홍 빛 색깔 → the scarlet color; 남색 운동화 → dark blue trainers).

위 빈도의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 문화소 한영 번역에서의 번역 전략을 정량 평가한 선행 연구들과 비교해보았다. 한영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 전략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 중 노진서(2007)는 한영

시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전략을 분석했는데, 여기서의 문화소는 가시적인 문화소(동양자루, 지게, 서당 훈장, 새끼줄, 떡, 장고 등) 즉 트롬페나르(1993)의 문화 계층 중 최외층(outer layer)에 속하는 인공물이나 물품(artefacts and products)에 집중되어 있었다. 번역 전략을 살펴보면 상위어에 의한 일반어 대체, 풀어쓰기, 문화대체어로의 대체, 음차번역 등 네 개 전략으로 범주화했고, 특히 그중에서도 풀어쓰기에 의한 구체화 전략(예: 지게를 지고와서 → with a frame bound upon his back)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했다(총 243건 중 116건). *The Vegetarian*의 번역 전략과 비교해보면 직역의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신 문화소를 일반어로 풀어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한국 영화의 한영 자막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 전략을 연구한 조재범(2014)은 한국 영화 총12편에 등장한 문화소를 고유명사군, 문화특수어군, 사회적특수어군, 관용어군으로 분류했는데, 그중 음식, 화폐, 도량형 등 문화특수어군의 번역 전략은 다른 표현으로의 대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54.1%), 직역은 32.3%에 그쳤으며, 비속어, 언어유희, 호칭 등의 사회적 특수어군에서도 대체는 48.1% 직역은 32.2%를 차지했으며, 속담, 격언, 관용표현 등 관용어군에서는 다른 표현으로의 대체가 64.6%이고 이에 반해 직역은 21.8%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주로 트롬페나르의 최외층에 속하는 가시적이고 실체적인 문화소의 번역 전략을 분석한 위의 두 연구에 비해 핵심층에 해당하는 색채어의 번역은 단어 대 단어 직역 번역이 거의 72.7%를 차지했다. 다시 말하자면, 특히 “원작이 그 언어 독자에게 주었던 문학적 감동과 효과를 충실하게 되살리기 위하여 독자를 염두에 두고 다시 쓰기”를 한(이인규 2017: 178) 데보라 스미스는 색채어를 문화적 거리에 대한 별다른 고려나 개입 없이 그저 단어 대 단어 직역만으로도 충분한 언어 보편적 대상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번역자는 어떤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을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데보라 스미스는 색채어 번역에 있어 유사대체(17건), 생략(13건), 색채어 추가(10건), 일반표현으로 대체(7건), 상이한 색채어로 대체(4건), 추가설명(1건)의 순으로 원문에 개입했다. 이중 두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유사대체를 보면, 파생어를 기본 색채어로 바꾸어준 경우(예: 희끄무레한 냉장고문 → the fridge's white door; 거뭇거뭇한 수염 → black beard; 작고 파릇한 몽고반점 →

small, blue Mongolian mark; 연갈색 유두 → brown nipples)가 17건 중 11건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해, ‘희끄무레한’, ‘거뭇거뭇한’, ‘파릇한’ 등의 접사가 붙은 파생어들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번역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자 반응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으로 빈도수가 많은 전략은 생략이다. 번역자는 특히 흰색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그녀의 흰 뒷모습을 삼킨 → her retreating figure; 흰 시트위에 → 생략; 입고 있던 흰옷이 피에 젖었어 → blood soaked clothes sucked onto my skin), 한국인에게 ‘신성, 초자연성, 청빈, 청결’의 의미로 다가오는 흰색(김은경, 김영인 2006)에 대해, 영어 화자가 갖는 ‘순수, 결백’(조영수 2001)이상의 특별한 느낌은 받지 못했던 것 같고, 그밖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색채어가 포함된 문장이나 문단이 그대로 생략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⁴⁾.

그밖에 원본에는 없는 색채어를 번역본에서 추가한 부분은 가시적 문화소이어서 독자의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경우이거나(예: 커다란 우족 두쪽 → two sides of black beef shin; 커다란 쓰레기봉투 → black rubbish bags; 와이셔츠 → white shirts; 햇간같은 밝은 건물 → a red, barn-like building⁵⁾), 혹은 보다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작가적 상상력으로서 색채어를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었다(예: 떨어진 고깃덩어리를 주워먹다 → pushed the red raw mass into the mouth; 비에 젖은 나뭇잎들이 맹렬히 반짝이고 있다 → the rain on the leaves glitters intensely, kindling a green fire; 그녀의 혀끝이 내밀어질 때마다 → every time that little pink tip darted out).

색채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꾼 경우는 모두 피부색 등 신체에 관련된 경우였으며(예: 불면으로 검게 탄 얼굴 → her face was blanched, a result of protracted insomnia;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 → swarthy cheeks; 얼굴을 붉히지

4) 『채식주의자』 번역에서의 오역이나 지나치게 과감한 생략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예: 김대중 2016)이 있지만 여기서는 오역 분석이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5) 이 경우 ‘밝은’을 ‘붉은’으로 오역해 ‘red’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영어에서 barn이 표상하는 색이 붉은색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창의성에 의해 추가된 색채어로 분류했다.

도 않은채 → without even having the grace to look embarrassed), 특히 피부색과 관련해서는 영어와 한국어가 동일한 대응어를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색채어로 바꾼 경우는 번역자의 창의적 선택이 많았고(예: 핏기없는 입술가에 흰 크림이 묻었다 → its redness smeared over her bloodless lips; 시퍼런 풀물이 들다 → a blackish paste was smeared over his skin; 자주와 빨강의 반쯤 열린 꽃봉오리 → half-opened buds, red and orange), 추가 설명을 붙인 단 한 가지 사례는 가시적 문화소인 경우였다(꾸덕꾸덕 짙은 팥죽색으로 굳게했다 → crying into the dark matt burgundy of red bean soup).

요약하자면, 번역자는 대부분의 색채어를 원문 그대로 직역 처리해(72.7%) 특별히 색채어를 감안해야 할 문화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의식적으로 원문에 개입했을 때는 많은 부분이 복합색채어가 주는 미묘한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대로 단일색채어로 전환한 경우들이었으며, 그 외에 피부 색 등 인체를 묘사하는 색채어인 경우와 가시적 문화소(음식 이름 등), 그리고 많지 않지만 작가적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른 색채어로 바꾸어주는 경우 등이 있었다.

4.2.3 독자 반응을 통해 살펴본 색채 의식의 차이

이번 장에서는 원본에 등장하는 색채어에 대한 한국어 독자 반응과 번역본에서 사용된 색채어에 대한 영어 독자들이 보인 반응을 비교하고, 양 언어 간의 색채 의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 4.1.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문 독자 3인, 그리고 번역본 독자 3인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심층 면접 결과 전반적으로는 한국어 독자와 영어 독자 간에 반응이 동일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수치로 살펴보자면 원본의 176건과 번역본에서 추가된 10건을 합하여 색채어 사용 총 186건 중 원본과 번역본의 독자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총 47건이었다. 서로 다른 반응은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빈도 수를 보인 것은 원본의 색채어를 그대로 직역했으나, 양 언어 독자 간에 해당 색채어에 대한 연상 이미지가 달라 서로 다른 반응을

블러일으킨 경우로써 전체 47건 중 24건을 차지했다. 이중 가장 많은 것은 검은색을 그대로 black으로 번역함으로써 서로 다른 독자 반응을 불러일으킨 경우였다. 한국 독자들은 ‘검은 구두’에서 “가장 평범하고 두드러지지 않으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주인공 영혜의 모습을 읽었으나 영어 독자는 여기서 검은색의 이미지를 “business-like, sensible, professional & simple”한 모습으로 받아들였으며, ‘약간 달라붙는 검은 블라우스(slightly clinging black blouse)’ 역시 영어 독자가 “sexy & chic”한 느낌을 말한데 반해 한국어 독자는 “자기 세계에 갇혀있고,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감추고 싶어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읽었다. 이것은 특히 의상과 관련하여 검은색(black)이 주는 느낌이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녀의 ‘염색하지 않은 검은 머리’에서 한국어 독자는 “남의 시각에 무관심한 태도”를 읽었지만, 영어 독자는 “her thick, natural black hair”에서 아시아인이므로 검은색인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특별한 느낌을 서술하지 않았고, 영혜의 ‘검은 눈동자’ 역시 한국어 독자는 “영롱하고 또롱또롱한 느낌”을 말한데 반해 영어 독자는 ‘her black pupils’에서 “별다른 느낌이 없다”고 서술했다.

흰색의 경우에도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1편 도입부에서 ‘흰색 잠옷’을 입고 등장한 주인공 영혜에 대해 한국어 독자는 “무채색적이고 튀지 않는” 또는 “성스러운, 초자연적인” 느낌을 말한데 반해 영어 독자는 “unmarked”와 함께 “mental patient, childish, ghostly”라고 서술했고, 아이에게 흰 옷을 입혀 사진 촬영을 하는 장면에서도 영어권 독자는 “good contrast with shabby & worn”이라거나 “wedding과 같은 느낌”이라고 한데 반해 한국어 독자는 “뭔가 성스러운 세계, 아무 것도 없는 무의 세계”와 같은 추상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밖에도 주인공 영혜의 옷에 가려졌다 드러나는 속살을 흰색으로 표현하는 ‘혈렁한 트레이닝 바지 아래로 드러나던 흰 발목’이라거나 ‘낡은 청바지를 벗자 드러나는 흰 엉덩이’에서 한국어 독자는 “선명하고 아름다운 느낌”, “선정적이면서 동시에 아름답고, 현세의 인간이 아닌듯한” 느낌을 받은 반면, 영어 번역본의 ‘the flash of white ankle which her baggy tracksuit bottoms had revealed’나 ‘slipped off her old jeans and revealed her white buttocks’는 성적인 느낌을 주기보다는 그저 “pale and delicate” 정도의 느낌만을 전달했다.

한마디로 한국어 독자에게 흰색은 추상적이고 성스러우며 초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여백인 반면 영어권 독자에게 흰색은 깨끗하고 단순하고 정결한 느낌을 줄 뿐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다만 선과 악의 대비로 흰색(white)과 검은색(black)이 함께 사용될 때는 동일한 반응을 유발했다.

그밖에도 직역을 한 색채어가 서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경우로서 몽고 반점을 서술하는 푸른색(blue)이 있었다. 독자 반응에 따르면 영어에서의 푸른색은 “평화로운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몽고반점의 푸른 빛 역시 “peace & tranquility”의 느낌을 전달하는데 반해, 몽고반점에 익숙한 한국인 독자들에게는 ‘푸른색 반점’이라고 해도 그것이 푸르기보다는 “약간 푸른 빛 도는 회색”인 피부 위의 흔적으로 받아들여질 뿐 별다른 연상 이미지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밖에도 ‘번쩍이는 황금빛(의 꽃이 그려진) 젓가슴’과 ‘glittering golden breasts’ 역시 연상 이미지가 달라 “softer than yellow, healthy, tanned not pale”의 느낌을 가진 영어권 독자에 비해 한국인 독자는 “여성적이고 풍요로운 느낌”을 설명했고, 일렁이는 나무들을 묘사하는 ‘초록빛 불꽃’은 그대로 ‘green fire’로 번역됨으로써 한국어 독자에게는 “화려하게 살아나는 나무, 여름의 무성한 신록”의 이미지로 다가오는 표현이 영어권 독자에게는 “green magic”의 이미지로 바뀌게 되었다.

두 번째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경우는 파생 색채어 혹은 스펙트럼 상에서 기본 색채어의 인근에 있는 관련 색채어의 느낌이나 연상 이미지가 원문과 다르게 전달이 되는 경우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번역자가 한국어 색채어의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경우였다. 번역자는 ‘붉은’이나 ‘빨간’보다 다소 순화된 느낌을 전달하는 ‘발개진 오른 손목’을 그대로 ‘reddened wrist’로 번역해 영어 독자들은 한국어 독자들과 달리 “anger & violence”를 떠올렸으며, ‘빨강계 금이 간 눈’을 잘못 해석, ‘red, narrowed eyes’로 번역해 “잠을 못자 피곤하고 충혈 된 눈”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을 “만화에 보이는 빨간 눈의 동물”을 연상시키고 독자들로 하여금 “menacing, threatening”의 느낌을 받게 만들었다. 또한 ‘수염이 거뭇거뭇한 두 뺨’에서 ‘거뭇거뭇한’은 군데군데 거무스름하게 수염이 난 초췌한 모습을 서술한 것인데 이를 ‘his black beard’로 바꿈으로써 “not approachable, intimating, more animal-like”한 이미지로 바꾸어 버렸다. 또한 초록의 관련 색채어인 연둣빛은 모두 ‘pale wash of green’ 또는

‘pale green’으로 바꿈으로써 영어 독자들에게 “뭔가 아픈 느낌”이라거나, “magical, fantasy-like”한 느낌을 주었지만, 한국어 독자들은 연둣빛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느낌”을 받는다고 답했다. 그밖에도 어린 시절의 주인공 영혜에 대해 ‘외꺼풀눈이 가늘어지며 온통 까매지는 순간’으로 회상된 것을 ‘her single-lidded eyes would narrow and turn completely dark’로 번역, 원문에서 “초롱초롱하고 생명력 있는”, 또는 “정신이 맑고 영롱한 모습”으로 해석되는 ‘까만 눈동자’가 ‘dark’로 번역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일반 사람들과 잘 소통을 하지 못하는” 이미지로 바뀌어 버렸다.

세 번째로, 가시적 문화소에 포함된 색채어를 번역한 경우도 역시 다른 독자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의 ‘우족 두짱’은 ‘two sides of black beef shin’으로 ‘black’이 추가되어 영어권 독자들에게 뭔가 ‘rare, luxurious kind of meat’, “somewhat disgusting”한 느낌을 주었고, 한국어에서 흔한 대상 물인 ‘노란 노끈에 엮인 굴비’는 ‘dried croaker tied with yellow strings’로 번역되어 “exotic Asian food”, “fish and yellow strings cannot coexist, so it sounds strange”로 서술되었다. 또한 ‘흑염소’, 그리고 ‘흑염소즙’을 지칭하는 ‘검은 액체’는 각각 ‘black goat’, ‘black liquid’로 번역되어 이에 익숙한 한국어 독자들에게는 “약효”, “건강식품” 이외 별 의미를 주지 않았지만 영어권 독자들은 “distant”, “unusual type of thing, some weird thing”, “some mystical thing like black swan” 등의 느낌을 주었다. 이렇게 가시적 문화소에 포함된 색채어는 이에 익숙한 한국어 독자들에게는 별도의 색채어라기보다는 그저 그 내용물을 인식하도록 하는 한 언어 표현일 뿐이지만 영어 독자들에게는 뭔가 이질적이고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지막으로 번역자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색채어를 임의로 다른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독자들 간에 상이한 반응을 유발한 경우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헛간 같은 밝은 건물’에서 ‘밝은’은 ‘a red, barn-like building’으로 번역되어 영어권 독자들에게는 “barn의 흔한 붉은색과 동물을 죽이고 가공하는 현장의 붉은 느낌이 한데 잘 어우러지는 색”으로 인식되어 원문의 “밝은”과 다른 느낌을 주었다. 윗도리를 탈의한 주인공 영혜가 아래에 받쳐 입은 ‘얇은 회색 면바지’는 ‘thin white cotton trouser’로 번역되어 한국어 독자가 “스님처럼 중성적 느낌”, “스님의 장삼법복과 같은 연회색”으로 받아들인 것을 영어 독자는 “comfortable, sit

around the house clothes”, “intimate homey homewear”, “innocent”의 느낌으로 해석했고, ‘달고기의 붉은 피’는 ‘crimson blood’로 번역되어 원문보다 더욱 “powerful”하고 “shockingly bright”한 분위기로 해석되었으며, ‘긴 불면으로 슛제 검게 타버린’ 주인공 영혜의 얼굴은 ‘her face was blanched, a result of protracted insomnia’로 번역되어 원문에서 “시커멓게 생명력을 잃어가는” 느낌이 약화된 “sick, pale”의 느낌으로 바뀌었다. 또한 형부의 눈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영혜의 모습에서는 ‘그녀의 혀끝’이 ‘little pink tip’으로 ‘pink’가 추가되어 성적 자극의 느낌을 전달하고, ‘핏기없는 입술가에 흰 크림이 묻었다’는 ‘spooning the last of her own shaved ice into her mouth, its redness smeared over her bloodless lips’로 원문과 다른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5. 종합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색채 의식이라는 것이 언어상대주의 주장대로 문화 특정한 방향으로 고착화된 현상인지 혹은 그 반대의 입장처럼 생리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인지를 색채어에 대한 독자 반응을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들이 번역 과정에 가지는 함의를 모색해보는데 있다. 특히 색채 의식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문화 간 차이와 문화소의 번역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예: 금지아 2015; 박진임 2004; 신혜인 2016; 조재범 2014 등) 대부분의 연구는 가시적이고 명시적인 문화소들(예: 음식, 문화재 등)에 치우쳐있으며 우리 의식의 심층에 자리잡아 행동이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치기 쉬운 심층적 문화 요소(트롬페나르의 문화소 분류에 따르면 가장 깊숙한 단계에 자리잡고 있는 핵심층)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비가시적이고 심층적인 요소에 대한 논의들이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요소들이 대부분 개념적이어서 명확히 구분해내거나 객관적 잣대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단계에 속하는 문화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색채 의식을 독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설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색채어를 상징적 도구로 적극 활용한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색채어 176개가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 번역본 *The Vegetarian*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이에 대해 원본 독자 반응과 번역본 독자 반응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

우선,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 전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번역자가 색채어에 대한 별다른 의식없이 대부분 단순한 일대일 직역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번역본 독자들의 용이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자국어 번역전략을 선택했으며(김영신 2016), 거의 “제2의 창작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이인규 2017: 178) 데보라 스미스는 따라서 가시적 문화소를 번역할 때 부가설명을 달거나 일반적 표현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유부 초밥’은 ‘fried tofu stuffed with vinegared rice’로, ‘술국을 끓여준다’는 ‘made a broth for her father to wash the liquor down’으로 부가 설명을 붙여주었고, 심지어 ‘형 별명이 오월의 신부였잖아? 의식있는 신부. 강직한 성직자 이미지’라는 문장은 ‘Your nickname used to be the May priest, you know. After Gwangju, your art was so engagé, almost as though you were atoning for surviving the May massacre.’처럼 원문에 없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설명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색채어의 경우는 전체 176개 중 128개(72.7%)를 특별한 개입 없이 그대로 일대일 단어 전환했다. 가시적 문화소에 대한 번역 전략을 정량 평가한 선행 연구(노진서 2007; 조재범 2014)와 비교해보아도 알 수 있듯이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는 색채어가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별히 개입을 해야 할 정도로 문화적 특정성이 강한 요소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본을 읽은 한국어 독자 3인, 그리고 번역본을 읽은 영어독자 3인의 색채어에 대한 반응은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

첫째로 독자 반응을 통해 확인한 것은 실제 색채 의식에 있어서 응답자간 그리고 그룹 간 보편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동일한 언어권의 독자 들 사이에서 색채에 대해 느끼는 의식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 3인이 동일한 반응을 보일 때 동질적인 색채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1차 면담 때 3인 중 일부만이 응답을 한 내용이

라 하더라도 추가 면담 혹은 이메일을 통해 확인을 하면 거의 대부분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언어권 간에도 전체 색채어 중 많은 부분에 있어서(번역본에서 추가된 색채어 포함 총 186개 중 139개)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특히 우리가 어떤 일정한 맥락을 가지고 일정한 스토리 안에서 사용되는 색채어는 읽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반응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이는 만케의 색채 경험 피라미드(1996)에서 제시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단계(인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보편적인 색채에 대한 시각이 동일한 혹은 유사한 연상 이미지로 이어지게 되는)가 많은 부분에서 유효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언어권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색채어에 접할 때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번역 과정에서도 색채 의식에 대한 특별한 고려없이 일대일 단어 전환을 하면서 그대로 지나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색채 의식의 문화 간 차이 역시 많은 경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제 47건의 색채어에 대해 원본의 독자와 번역본의 독자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스토리 전개에 대한 이해나 등장인물에 대해 독자가 가지게 되는 이미지 자체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번역자로서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부분은 색채어 자체에 대한 연상 이미지가 한국어와 영어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일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특히 기본 색채어에서 흰색과 푸른색, 그리고 검은색에서 연상 이미지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한 예로 흰색의 경우는 한국인에게 오랫동안 중요한 색으로 여겨져 왔으며 상서롭고 신성한 색, 정신적 영역의 색으로 여겨져 온 반면에(김은경, 김영인 2006), 영어에서의 흰색은 ‘순수, 순결, 청결’의 의미를 가져(조영수 2001) 독자 반응 차이를 유발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색채의 연상 이미지 차이에서 유의할 점은 색채어의 연상 이미지가 꾸밈을 받는 말과 어우러지면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검은 창밖’과 ‘black window’는 같은 느낌을 주지만 ‘검은 눈동자’와 ‘black pupils’는 서로 다른 느낌을 주며, ‘하얀 새’와 ‘white bird’는 검은 새(black bird)와 대조를 이루며 동일한 느낌을 주지만 ‘하얀 발목’과 ‘white ankle’은 서로 다른 느낌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자로서는 어떤 색채어의 일반적인

연상 이미지를 학습하고 이를 번역에 적용하기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대상을 꾸밀 때 연상 이미지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번역자가 맞닥뜨릴 문제는 3장에서도 설명했듯이 비교적 한영 간 색채 대응어가 잘 일치되는 기본 색채어와는 달리 파생어나 복합어 등은 한국어와 영어 간에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색채어가 표현하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일대 일로 대응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유념해서 원문에서의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데보라 스미스는 많은 파생어들을 그저 기본 색채어로 바꾸어 번역함으로써(예: 수염이 거뭇 거뭇한 두 뺨 → his black beard) 서로 다른 독자 반응을 유발했고, 유사한 파생어로 쓰는 경우에도 그 느낌을 동일하게 전달하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예: 흐릿한 연둑빛 → pale green).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색채어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만케의 색채 경험 피라미드에서 볼 수 있듯이 원시 시대의 수렵생활에서부터 우리의 유전자 속에 축적되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색채어들은 꾸밈을 받는 대상과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연상 이미지를 전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한 문화권 내에서 특정한 이미지로 굳어져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문화소 번역에 관한 여러 논의들이 가시적이고 명시적인 문화소에 주로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심층적 요소들은 그것이 표피에까지 밀려나와 해당 문화권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문화적 요소를 논할 때 빼놓지 않아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참고문헌

- 강봉균 옮김 (2010) 『인지, 뇌, 의식: 인지신경과학 입문서』, 서울: 교보문고.
 (Bernard J. Baars & Nicole M. Gage, 2007,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 고석천 (1996) 「한국인의 색채의식에 관한 연구: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색채

- 학회』 12: 21-33.
- 금지아 (2015) 「한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전략」, 『번역학연구』 16(3): 7-26.
- 김가희 (2016) 「해석과 창의적 다시쓰기로서의 문학번역: Vegetarian을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9(3): 29-44.
- 김기찬 (2000) 「영어와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의 비교 분석」, 『언어과학연구』 18: 21-48.
- 김대중 (2016)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연구」, 『인문과학연구』 51: 31-59.
- 김영신 (2016) 「미국화인가 자국화인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번역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37: 37-55.
- 김영철 (2003) 「우리말 관용어의 상징 의미연구」, 『국어문학』 38: 55-72.
- 김은경, 김영인 (2006) 「한국인의 흰색 상징」,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0(4): 25-39.
- 김해연 (2014) 「국어 기본색채어와 파생어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 『언어』 39(4): 749-71.
- 노진서 (2007) 「한-영 시에 활용된 문화소의 번역 전략」, 『이중언어학』 35: 127-46.
- 박선훈, 권영걸 (2005) 「한국 속담에 나타난 서민의 색채의식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19(3): 1-11.
- 박인진 (1999) 「색깔의 문화적 범주화에 대한 보편적 연구」, 『외대논총』 19(2): 193-219.
- 박진임 (2004) 「문학번역과 문화번역: 한국문학작품의 영어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연구」, 『번역학 연구』 5(1): 97-111.
- 손세모들 (2000) 「국어 색채어 연구」, 『한말연구』 6: 133-65.
- 신성운, 장대현, 신광성, 이현창, 이양원 (2011) 「색채와 감성과의 관계」, 『한국 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19(2): 317-18.
- 신혜인 (2016) 「다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문화소 번역에 대한 연구」, 『통역과 번역』 18(3): 213-34.
- 안수빈 (2015) 『한국어와 영어의 색채어 대조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유명기 (1993) 「문화상대주의와 반문화상대주의」, 『비교문화연구』 1: 31-56.
- 이선영 (2012) 「국어의 기본색채어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62: 143-70.
- 이인규 (2017) 「『채식주의자』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번역학연구』 18(3): 173-205.
- 이현희 (2011) 「한국어 색채표현의 양상과 그 분류」, 『한글』 291: 193-228.
- 조영수 (2001) 「한국어, 독일어, 영어에 나타난 색깔의 상징의미(I): 하양과 검정」, 『독일문학』 84: 513-37.
- 조영수 (2003) 「한국어, 독일어, 영어에 나타난 색깔의 상징의미(II): 빨강, 노랑, 초록」, 『독어학』 8: 143-73.
- 정시화 (1981) 「한국인의 색채의식」, 『정신문화연구』 4(3): 135-47.
- 조재범 (2014) 『한국 자막번역과 문화소 번역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미경 (2010) 「그린 정책과 색 이미지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24(1): 15-29.
- 진실로 (2003) 『색채어 번역 연구: 한국어 영어 간의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승희, 이명순, 옴김 (1999) 『색채, 환경, 인간 반응』, 서울: 국제. (Frank H. Mahnke, 1996, *Color, Environment, & Human Response*, NY: Van Nostrand Reinhold Co).
- 한 강 (2007) 『채식주의자』, 서울: 창비.
- 황상민, 권보미 (2005) 「색채 감성 이미지척도(PCIS)를 통하여 살펴 본 인간의 색채 감성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19: 13-25.
- Berlin, Brent & Kay, Paul (1969)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CA: CSLI Publications.
- Gleason, Henry A. (1961)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NY: Holt, Reinhart & Winston.
- Hall, Edward T. (1990) *The Silent Language*, NY: Anchor Books.
- Han, Kang (2015) *The Vegetarian*, Trans. Deborah Smith, London: Portobello.
- Katan, David. (1999) *Translating Cultures: An Introduction for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Mediators*, Manchester: St Jerome.
- Lim, Su-Jin (2006) 'A Comparative Study of Basic Color Terms in English and

Korean, MA dissertation, Seou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hnke, Frank H. (1996) *Color, Environment, & Human Response*, NY: Van Nostrand Reinhold Co.

Sapir, Edward (1929) 'The Status of Linguistics as a Science', *Language* 5(4): 207-214.

Trompenaars, Fons (1993) *Riding the Waves of Culture*. London: The Economist Books.

Winick, Charles (1963) 'Taboo and Disapproved Colors and Symbols in Various Foreign Countri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6: 361-8.

[Abstract]

**A Study on Different Color Perceptions between Korean and English:
Based on Readers' Responses to Color Terms**

Won, Jong-Hwa
(Chung A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discern how translated versions of color terms elicit different responses among readers and to decide what factors cause such differences. As concluded from the interviews with Korean readers of the novel *chaesikjueuja* written by Han Gang and English readers of *The Vegetarian*, its translated version in English, the readers of the two languages exhibited different emotional responses to specific colors, in particular black, white, and blue. The responses were also different when the translator failed to convey the culturally-dictated subtle nuances of the derivative color terms in the source text; and when the translator decides to divert from the source text and give special nuances to the sentences by using different color terms.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that color perceptions surely have universality among different languages as stipulated by Kay and Berlin(1999). Cultural relativity, however, also plays a significant role in color perceptions, as evidenced by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conducted for this paper. These findings present a practical challenge for the translator as much as a research challenge for translator researchers.

▶ Key Words: color experience pyramid, color perceptions, color terms, cultural relativity, layers of culture

원종화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교수

wonjh@cau.ac.kr

관심분야: 인지과학, 과정지향적 통번역 연구, 문화와 통번역

논문투고일: 2017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3일